



영산강 황포돛배



다도면 도래마을의 전통 한옥들



빛가람호수공원 전망대 야경

‘함께라서 더 좋은 1박2일 나주여행’ 떠나요

시, 금호고속과 협업 ‘13만9천원’ 관광 상품 출시 빛가람 치유의숲·다도 도래마을·불회사 등 투어 9~10월 4회 운영...나주의 맛·멋·심신 치유 만끽

2000년 역사문화·생태도시 나주시가 일상 속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1박 2일 관광 패키지 상품을 13만9000원에 새롭게 선보인다. 나주시는 500만 관광객 시대 실현을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금호고속과 협업해 ‘함께라서 더 좋은 1박2일 나주여행’ 관광 기획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박2일 나주여행은 나주만의 특색있는 체험과

자연 속에서 치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행코스다. 웰빙·행복·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웰니스(wellness)’형 관광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여행은 사전 온·오프라인 예매를 통해 9월 9~10일, 16~17일, 10월 7~8일, 21~22일까지 총 4회 운영한다.

첫날 일정은 광주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빛가람 치유의 숲(산림자연연구소)에서 체험하는 심신 치유 프로그램 ‘설렘치유’로 시작한다. 이어 고즈넉한 전통 한옥마을인 다도면 도래마을을 거쳐 덕룡산에 있는 천년고찰 불회사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茶道) 체험 시간을 갖는다. 비자나무 군락과 야생차밭이 어우러진 불회사 숲길을 걷다 보면 숨 가쁜 일상 속 잠시나마 여유와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도 체험 이후에는 인력거를 타고 천년 목사고를 나주를 상징하는 문화재인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아 등을 둘러보는 ‘나주읍성 인력거’ 체험이 진행된다.

나주 전통 한정으로 저녁을 먹고 명품 야간 경관을 자랑하는 빛가람 전망대를 끝으로 첫날 여행 일정을 마무리한다. 둘째 날은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으로 시작된다. 전국 유일의 내륙 등대인 영산포 등대가 위치한 선착장에는 황포돛배를 비롯해 대형 목조선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선상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영산강 유람에 낭만을 더한다. 중식 이후에는 새송이버섯농장으로 이동해 영양소는 물론 맛과 향이 일품인 새송이버섯을 직접 수확해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나주로컬푸드직매장에 들른 뒤 여행 출발지인 광주유·스퀘어로 되돌아가면서 마무리된다.

여행 요금은 우등버스 왕복 교통비, 4식, 호텔 숙박비, 체험비(5개)를 모두 포함해 13만9000원이다. 예매 신청은 전화(062-360-8502) 또는 광주유·스퀘어 1층 화물통신크터 옆 금호고속관광을 방문하거나 버스한바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주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 힐링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나주여행에 관광객을 초대한다”며 “1박2일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찾고 싶은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하맥축제 “전북 농가 돕는다”

전북 40% 특별할인...31일 강진종합운동장서 개막

강진군은 31일부터 9월2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회 강진 하맥축제 때 강진 전복을 4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진군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격려하고 판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판매전을 기획했다. 강진 마당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잠점복’은 군 산하 전 직원 ‘1인-1복 전복사주기 운동’과 더불어

이번 축제 때 판매행사를 통해 어가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 현장 판매와 더불어 택배로 접수하면 신청 후 다음날 오전 발송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강진 전복은 빨층 위에서 더디게 천천히 자라지만 빨층에서 나온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살고 특히 강진만으로 민물 유입이 많아 단맛이 더 풍부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수산물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브랜드 개발, 저온저장고 확충 지원, TV홈쇼핑 지원, 수족관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이번 하맥축제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복양식어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면서 “군민들께서도 군의 ‘1인-1복 전복사주기’ 운동 동참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군수 김한중·가운데)이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사업안 28건을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보고회

장성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 사업 발굴보고회를 지난 29일 열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주관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보고회’에는 총 28건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다.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장성군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분야 10건, 문화·예술·보건 증진 분야 4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5건 등 총 28건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안은 보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선호도 설문조사, 발굴 안전 심층 검토 등을 거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내년도 기금사업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민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은 기금사업에 달렸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불용 농기계 84대 매각 9월 20~22일 입찰

함평농업기술센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사용기한이 초과해 불용이 결정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매각한다. 사용 연한이 초과해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불용 농기계는 감자·약초 수확기 등 24종, 총 84대로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농기계 입찰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며 입찰은 1인당 3대까지로 낙찰 대수를 제한한다. 구매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기준가격 이상 최고 가격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 기회가 주어진다. 문종도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고농기계 활용으로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담양군이 매달 주 2회 진행하는 ‘정신건강 주간 재활교육’에 참가한 지역민들이 운동치료를 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정신 질환자 ‘주간 재활교육’ 운영 주 2회 약물·증상훈련·미술·원예치료 등

담양군이 매달 주 2회 ‘주간 재활교육’을 운영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민들을 돕는다.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에 등록된 정신 질환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독립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주로 미술치료, 신체 건강관리, 약물·증상훈련, 원예치료 등을 받는다.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 생일잔치를 열어 주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정신건강 주간 재활교육’ 참가자는 상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1-380-27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연말까지 ‘나라미’ 최대 90% 할인 차상위계층 등 842가구...10kg 1포 2500원~1만원

장흥군이 총 842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쌀 ‘나라미’를 연말까지 기존 가격보다 60~9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라미는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보장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가구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현재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20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122가구 등 총 842가구이다. 2022년산 국산 쌀 기준 10kg 1포(사중가 2만 5310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만원에 공급한다. 나라미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원 1인당 월 10kg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쌀은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단 구매한 양곡은 직접 이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재판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장흥군에 사는



정부 양곡 ‘나라미’가 장흥지역 주민에게 배송되는 모습. <장흥군 제공>

복지대상자가 정부 양곡 할인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누림으로써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이상동기범죄 막는다” 함평경찰, 특별 치안활동 실시

함평천지길 등 5곳 집중 순찰

함평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 따른 사회적 불안감 증가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했다. 함평경찰서는 함평천지길(돌래길) 등 5개 지역을 특별치안활동 다중밀집 지역으로 선정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협력단체와 탄력적이고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약자인 노인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함평천지길을 민·경 합동 야간 순찰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 지역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

결하고 있다. 윤장기 함평경찰서장은 “민·관·경 방범협력체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특별범죄예방 치안 활동 전개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함평군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